****

**선교 활동 보고**

**농장 노동자들의 새 날**

루페 곤잘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농장 노동자들의 고된 삶을 너무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새벽 4-5시에 일어나서 농장으로 향합니다. 거기서 바구니를 받고 하루동안 최대한 많이 바구니를 채우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네 일이야"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이게 네가 여기에서 할 일이야. 네가 이 일을 하고 있을 때, 때로는 잠시 숨을 돌리거나, 휴식을 갖거나, 물을 마시거나, 정신을 차릴 시간 조차 없을 거야."

모든 농장 노동자들이 노골적인 착취의 대상이 될 때에, 여자들은 특히 취약합니다.

"여성 농장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는 그들이 성희롱과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는데, 언어적인 것 뿐만 아니라 신체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라고 루페가 말했습니다. "여성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항변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주 그렇게 하면 일자리를 잃어버릴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노동자 인권 옹호 단체인 '이모칼레 노동자 연합(CIW)' 덕에 루페와 수많은 농장 노동자들의 삶은 개선되고 있습니다. CIW는 '위대한 나눔의 실천' 특별 헌금으로 지원되는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의 파트너입니다.

'위대한 나눔의 실천' 헌금의 목적은 전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적은 꾸준히 계속되고 있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실질적인 방법이 되어 주었습니다. '장로교 재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서 뿐 아니라,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과 '공동체 프로젝트 지원 장로교 위원회'를 통해서도 어려운 이웃을 향한 도움이 전달됩니다.

"CIW는 먹거리가 자라는 농장에 안전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ministries/matthew-25/) 교단이 되기 위해 헌신하는 최상의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장로교 기아 프로그램(PHP)의 '전미 기아 문제' 부담당관 앤드류 강 버틀렛이 말했다. "농장 노동자들은 매일 인종차별과 성차별과 가난에서 비롯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연대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농장 노동자들을 위해 전국의 장로교인들이 해 주신 지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소중합니다"라고 루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고, 단순히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요구하는 차원이 아니라 인권은 반드시 보장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전진했습니다. 장로교인들은 우리와 함께 단식하고 행진했습니다. 그 결집된 행동들을 통해 우리는 농장 노동자들을 위한 새 날을 함께 요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이기에, 함께 새로운 날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 모두가 조금씩 기부한다면, 이것이 모여 큰 액수가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의를 위해 당신께 기도합니다. 가족들을 먹이고 머물 곳을 마련하고 삶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정의를 이루어 주소서. 저희의 기도와 헌금이 믿음 속에서 파트너들와 함께하여 당신이 원하시는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